

영화감상

사실주의 한국영화 부활의 씨앗



‘부활의 노래’를 보고

구성되어 있는데 1,2장은 광주항쟁 바로 직전의 상황, 3~6장은 81년 이후와 당시의 회고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인물들 모티브로 창조된 4인물 중심으로 당시의 민주화 물결과 좌절 그리고 부활까지의 과정을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 편의 서정시처럼 그려내고 있다. 그 재현된 광주속에서 그들이 충을 들고 지켜야했던 자유와, 목숨을 버리면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들이 보여지고 관객은 그것들을 현실로 환원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부활의 노래’는 광주 문제를 다루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오! 꿈의 나라’와 비교가 많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 16mm와 35mm라는

더불어 이미 상영된 바 있는 ‘남부군’과 함께 ‘부활의 노래’는 한국영화의 사실주의적 전통의 갈래로서 ‘현대사의 영화적 재조명’작업의 한 성과로 남는 동시에, 전보적 영화가 기존 유통구조를 이용하여 조직배급보다도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극장을 상영공간으로 삼음으로써 활동무대를 확장했다는 의의를 꼽을 수 있다.

‘부활의 노래’는 조화로운 인물 설정이나 드라마적인 요소들—철기의 죽음과 새 생명의 탄생, 태일과 민숙의 죽음과 영혼 결혼식—의 배치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감흥(가타르시스)유발에는 실패한 것이라 보인다. 영화가 영사기에서 쏟아지는 광선들의 질

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관객을 영화적 현실에 최대한 동화시키는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에의 총체성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관객들을 스크린에서 한 발짝 물리치게 하고 있다. 거기에 기술적 부분(연기, 세팅, 녹음)에서 간간히 보이는 실수들이 눈에 띄어 전체적인 흐름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것은 물론 ‘광주’라는 진보적 소재를 표현했다고 면죄될 수 있는 부분은 아

다. 한편, 자본의 영세성극복과 건장한 영화자본 육성의 측면에서 국민주모금을 통해 제작비의 5분의 1 정도를 충당한 점과, 영화의 소재가 되는 80년대의 광주 ‘들불야화’ 관계자들이 영화의 실질을 참가하여 자료제공 및 고증을 한 점은 국민대중의 영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6등분 구성의 새로운 기법은 전체적 통일성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점한 극장 한 귀퉁이에서 초롱초롱한 백여개의 눈동자들과 함께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한국 영화의 부활을 지켜 보았다. 그것은 동시에, 고회에 접어들어 영화가 이제 겨우 절망에서 시작할 변혁 운동의 발걸음을 따라가려는, 정치권력과 자본에 철저히 종속되어왔던 시간의 현실을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15일만에 상영을 끝내고 떨어지는 ‘부활의 노래’의 간판을 보면서, 광주항쟁을 다룬 첫 35mm 시도가 그 동안 검열 파동을 비롯한 센세이션의 파급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들로부터 외면

당해아만 했는가, 아직 관객들은 묻어두었던 80년의 고통으로 눈을 돌리기에겐 험라우드의 화려

한 메카니즘의 잔상이 너무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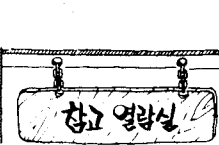
근본적인 차이를 차지했을 때, 분명 ‘부활의 노래’는 ‘오! 꿈의 나라’보다는 올바른 편을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소외되고 파란바

다. 특히, 중반부부터는 철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면서 더욱 산만해졌다.

(철기 역을 맡은 김 영건의 연기는 지적될만하다.) 그러나, 자칫한 ‘오! 꿈의 나라’처럼 굴절된 개인 의욕이 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을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부활로 승화시킴으로써 관객에게 주의 환기를 일으키는데는 성공하고 있다.

한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관객을 영화적 현실에 최대한 동화시키는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에의 총체성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관객들을 스크린에서 한 발짝 물리치게 하고 있다. 거기에 기술적 부분(연기, 세팅, 녹음)에서 간간히 보이는 실수들이 눈에 띄어 전체적인 흐름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것은 물론 ‘광주’라는 진보적 소재를 표현했다고 면죄될 수 있는 부분은 아

극적인 반전 통해 관객의 환기 획득 현대사의 영화적 재조명 작업의 성과 영화기술·내용의 질적 발전 병행해야



자연과학 전방에 걸쳐 법칙이 있다는 것은 열역학의 3대법칙일 것이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법칙이다. 제3법칙은 열역학적인 절대온도 0도 즉 섭씨 -273도에서는 엔트로피는 0이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으로서 엔트로피란 ‘변화’를 의미하는 희랍어 ‘트롭에’에서 유래되었으며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디우스(1822~88년)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혹은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무질서화된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써 이 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체계와 가치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혼돈과 황폐를 향하

여 간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는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사용되거나 확산되었을 때이며, 가장 무질서한 상태인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사용되거나 확산되었을 때이다. 엔트로피가 가장 작은 상태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많고 질서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여러곳에서 엔트로피의 증대에 의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서 도시화 경향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보면 도시가 확대된다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 커지고 무질서가 증대됨을 의미한다. 즉 도시 확대에 의한 주택, 범죄, 공해, 과중한 세금, 교통 등의 문제는 도시 환경의 엔트로피가 증대되어 도시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흐름을 높여 나가면 나갈수록 에너지 환경은 고갈이 계속되고 낭비와 무질서도 증대되므로, 저(低)엔트로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도덕규범이 되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각자가 사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강요되는 전과로 2만5천 원이며, 신청은 당일날 민미협 사무실로 하면된다.(전화 614-0195)

민요연구회 단원모집
민요연구회는 극단 ‘바람’과 함께 민요연구회를 창립하고 신인단원을 모집한다.

민요연구회는 민요의 날 행사, 책자발간, 제1회 민요예술상 수상작인 민요판 ‘아름다, 이젠 말하리라’ 등을 공연했던 모임이다.(전화 858-9352)

하 동 명 (공대강사·화공학)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한강에서 백두산까지

두산그룹 해외기술시찰단으로 중국에 다녀온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체험들을 한데 모아 엮었습니다.

교사 해외기술시찰단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북경과 연변 용성을 둘러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른 우리 선생님들의 흥분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두산이 지금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다 부를 수 없었던 애국가. 백두산 위에서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한국에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천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 세월동안 조금이라도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였습니다.

● 두산그룹에서는 매년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교사해외기술시찰단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